

産油國의 原油 판매방식

— 韓國輸出入銀行 海外投資調查部 —

I. 머리말

Ⅰ 際原油市場이 최근 판매자시장(Seller's market)에서 구매자시장(Buyer's market)으로 전환됨에 따라 외환수입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유국들은 각종 油價 할인방식을 도입, 原油 판매량 증대를 모색하고 있다.

원유시장에서의 이러한 전환은 구조적인 면에서 非 OPEC 산유국의 산유량 증대와 그에 따른 OPEC 회원국간의 결속력 약화, 소비국의 原油 소비절감, 그리고 現物市場에서의 거래규모 확대 등에 기인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더하여 최근 原油 시장에서는 달러貨 장세에 따른 재고수요 감소, 連繫貿易 방식에 의한 原油 수출 증가 등의 현상이 나타나면서 現物油價는 하락세를 지속하게 되었다. 油價가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산유국들의 原油 판매에 있어 가격협상능력은 크게 약화되었으며, 종전에 일방적으로 설정하던 계약가격(Contract price) 또는 公式價格(Official selling price, 이하 公式價라 함)¹⁾은 그 의미를 점차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公式價는 OPEC 가격체계유지상의 상징적인 가격 내지는 持分생산자(Equity producer)에 대한 課稅기준가격 등으로 전락되고 있는데, 세계 原油 총거래량 18.5백만b/d 중 약 6백만b/d에 대해서만 公式價가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하 本稿에서는 최근 산유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각종 판매방식을 정리한 다음 주요 산유국의 原油 판매방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原油 판매방식

1. 기간계약조건의 완화

석유위기 직후 장기안정적인 공급원 확보라는 측면에서 소비국들은 장기거래계약(Long-term contracts)을 선호하였는데, 이 경우 계약기간은 통상 1년 이상, 그리고 가격은 계약기간중 불변인 고정가격으로 실제로는 프리미엄까지 부과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油價 약세와 장기계약(Term contracts) 거래량의 감소로 계약조건은 크게 완화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약기간이 단기화되는 가운데 최장 3개월 단위의 기간계약이 나타나고 있다. 즉 아직도 안정적인 供給源 확보를 위한 장기계약도 존재하지만, 原油 공급 중단위험의 감소, 原油 공급원의 다양화 등에 기인, 계약기간이 단기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둘째, 계약가격은 現物油價에 연계되어 계약기간중 수시 조정되기도 한다. 이는 1984년 10월 최초로 노르웨이 國營石油會社 Statoil이 4/4분기 기간계약가격을 월별로 다르게 적용함으로써 구체화된 방법이다. 월별 계약가격은 보통 전월의 現물유가를 적용하는데 경우에 따라 소급 적용하여 사후정산되기도 한다.

셋째, 계약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대신에 양당사자가 협의 결정하는 방법이 이용되기도 한다. 이의 대표적인 예는 英國, 中共 등의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넷째, 계약기간과 계약물량만을 정하고 가격은 每原油引渡時點의 現물유가를 적용하는 보다 완화된 방법도 출현하였다. 이는 1985년 1/4분기중 이란이 對日原

油판매를 촉진키 위해 채택한 방법으로「Frame contract」라고 불리운다.

기타, 최근 멕시코가 채택한 도착지별 差等價格적용, 代金決濟期日의 연장 등도 거래조건 완화의 사례로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계약조건이 여러가지 형태로 완화되고는 있지만, 최근에 일부 산유국들은 도착지제한 등 조건을 강화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原油구매자들이 구매한 原油를 현물시장에 유출시킴으로써 同油種의 판매에 애로를 겪고 있는 산유국들이 취한 조치로 이란, 中共, 인도네시아 등이 이를 채택하고 있다.

2. 現物市場에의 판매

1979년 제 2차 석유위기 당시 國際原油市場에서의 現物거래량(Spot Sales)은 전체공급량의 1~3%에 불과하였으나, 1984년 중에는 30~40%에 달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²⁾

현재 쿠웨이트, 美國, 리비아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유국이 현물거래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란, 소련이 가

장 대표적인 예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도 Norbec으로 하여금 現物油價가 약세를 보일 때 비축유를 현물시장에 판매토록 하고 있다.

現物市場에 유입되는 原油는 산유국정부에 의한 직접판매, 持分생산자 및 第三者(Third-parties) 판매, 연계무역으로 수취한 原油의 재판매, 그리고 정유업체의 재고판매 등에 의한 것으로 이러한 原油는 공시가보다 낮은 현물가격 또는 할인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최근 현물시장은 각 지역별로 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유럽시장에서는 브렌트(약 3.5백만b/d 거래)가, 美國시장에서는 WTI(West Texas Intermediate)(약 1.4백만b/d거래)가, 그리고 수에즈 東部시장에서는 아라비안 라이트(약 1.5백만b/d 거래)가 각각 대표油種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 시장에서의 油種間 경쟁관계는 <表-1>과 같다.

3. 混合販賣

混合販賣(Supply mix or package sales)는 시장변화에 따라 인기없는 油種을 소위 「끼워 파는」 방식

<表-1> 油種間 경쟁관계

市 場	代表油種	競 爭 內 容		
		油 種	公式價(\$/b)*	生産量(천b/d)◇
유 럽	Brent	{ 英 國 Brent Blend-38	26.65	895
		{ 노 르 웨 이 Statfjord-38	26.85	435
		{ 나 이 지 리 아 Bonny Lt.-37	28.67	250
		{ 이 집 트 Suez Blend-33	26.75	550
		{ 소 련 Urals-32	26.00(CIF)	1,000
美 國	WTI	{ 멕 시 코 Maya-22	24.00	915
		{ 베 네 수 엘 라 重 質 油
		{ 멕 시 코 Isthmus Blend-34	23.00	550
		{ 美 國 WTS-33	26.20	1,000
수 에 즈 東 部	Arab. Light	{ 사우디아라비아 Arab. Lt.-34	28.00	1,000
		{ 오 만 Oman Blend-34	25.90	475
		{ 이 란 Iran Lt.-34	28.05	...
		{ 인 도 네 시 아 Sumatran Lt.-34	28.53	650
		{ 中 共 Daqing-33	26.75	400

註: * 6월말 현재 價格

◇ 3월 중순 현재 產油量

<資料> AP-DJ, PIW 등.

인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처음으로 실시하였고, 최근 나이지리아와 인도네시아 등도 실시하고 있다.

1984년 10월 혼합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油價인하를 단행한 바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현재 油種間비율은 Light油 40%, medium油 25%, heavy油 35%로 되어 있는데, 이는 모든 구매자에게 적용된다. 나이지리아의 경우는 일정량 이상을 구입하는 구매자에게만 할인혜택을 주고 있으며, 그 구성비율은 Bonny medium油 15%, Forcados油 35%, Bonny light 油 50%로 되어 있다.

4. 現物油價 연계방식의 채택

現物油價連繫(Spot-related prices or market-related prices) 방식은 종전 산유국들이 原油수급사정에 관계없이 설정했던 公式價를 현물가격 또는 시장가격에 연계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주로 非OPEC 산유국들에 의해 채택·이용되고 있는데, 최근 일부 OPEC회원국(이라크, UAE, 알제리 등)도 自國의 持分생산자와의 거래시 이용하고 있다.

現物油價에 연계된 가격의 적용기간은 보통 1개월인데, 분기별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월별로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판매가격은 전월의 가중평균現物價格에 기초하거나 산유국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기도 한다.

5. 連繫貿易의 추진

連繫貿易(Countertrade)은 바터거래(Barter deals), 求償貿易(Compensation trade), 對應購買(Counter purchase) 등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최근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OPEC 회원국들이 油價약세하에 산유량 쿼터의 제한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연계무역거래에 대하여는 당사국들이 공표를 꺼려하기 때문에 거래량과 거래가격 등 거래내용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할인가격이 적용된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으며, 현재 세계적인 原油의 연계무역량은 약 2백만b/d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原油의 연계무역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국가로는 이란(약 0.45백만b/d), 이라크(약 0.4백만b/d), 나이지리아(약 0.3백만b/d), 리비아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가장 규모가 컸던 것은 1984년 7~9월 중에 사우디아라비아가 거래한 것으로 그 규모는 약 10억달러에 달하였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에도 프랑스와 戰鬪機구입을 위한 연계무역을 추진중인데, 작년 경우의 油價충격을 고려하여 同伴(약 20억달러 상당)에서는 原油인도기간을 3년으로 하여 약 70천b/d를 인도할 계획으로 협상중에 있다.

〈表 - 2〉 石油製品 거래량 추이

(單位: 千B/D, %)

수 출 지 역 별	1980	1981	1982	1983	1984	증 가 율 (1983 / 84)
中 南 美	2,045	2,035	1,690	1,415	1,520	-25.7
中 東	1,090	610	710	820	980	-10.1
東 南 亞	355	375	415	330	505	42.2
美 國	270	370	580	575	540	100.0
北 아 프 리 카	185	185	270	335	415	124.3
東 歐 圈	885	975	1,015	1,230	1,290	45.8
世 界 全 體*	5,390	5,205	5,470	5,520	6,015	11.5
總 石 油 거 래 량 (石油製品구성비)	31,935 (16.9)	28,655 (18.2)	25,565 (21.3)	24,355 (22.7)	24,750 (24.3)	-22.5 -

註: * 地域別 합계와 세계전체는 일치하지 않음.

〈資料〉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1984를 간접 인용.

6. 精製價值基準판매

精製價值基準판매(Netback value or product-realization based deals)란 가장 최근에 도입된 原油판매방식으로서, 정제가치는 原油 1 배럴의 제품가치에서 정제비, 구입에 따른 수송비 등을 차감한 가치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精製價值 = 製品價值 - (정제비 + 수송비)
(netback value) (gross product worth)

이 방식은 결국 정유회사의 정제 마진을 감안하고 있는데 그 특징이 있다. 일반적으로 精製 마진은 正(+)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原油價 하락보다 큰 폭으로 제품가격이 하락할 경우 負(-)로 나타나기도 한다.³⁾ 이 경우 경쟁력이 취약한 정유회사는 原油를 구입하는 대신 현물시장에서 저렴한 정유제품을 구입하기도 하며 在庫原油를 현물시장에 판매했기도 한다.

精製價值基準 판매방식은 이러한 사태를 방지키 위한 것으로 현재까지는 정유회사와의 거래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란, 카타르, 中共和 등이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사우디 아라비아도 이 방식의 적용을 시사한 바 있다.

7. 기타 販賣方式

기타 판매방식으로는 제품형태로의 판매와 上記한 방식의 혼합형태 등을 들 수 있다. OPEC회원국중 제품형태의 판매는 사우디아라비아(약 0.4백만b/d), 쿠웨이트(약 0.4백만b/d)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 국가는 이 방식으로써 분기별 산유량 쿼터의 제한과 價格준수부담을 완화시키고 있다.

Ⅲ. 산유국별 原油販賣方式

1. 中東산유국

(1) 사우디 아라비아

사우디 아라비아는 OPEC회원국중 公式價를 가장 충실히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다양한 판매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 예로는 現物市場판매를 위한 Norbec의 설립·운영,

혼합판매 및 제품판매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7월 현재 OPEC의 공급조절자로서 2백만b/d 수준을 생산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예산목표(약 4백만b/d)를 달성하기 위하여 하반기 이후에는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바터去來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 쿠웨이트

原油판매시 公式價를 충실히 적용하고 있는 편이나, 제품판매를 강화하고 있으며, 제품판매의 경우에는 現物市場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쿠웨이트는 현재 0.9백만b/d의 原油를 생산하면서 0.3백만~0.4백만b/d는 D-D(Direct deals) 방식으로 판매하고, 0.14백만b/d는 KPC(Kuwait Petroleum Corp.)의 유럽지역 子會社에 精製用으로 판매하고 있다. 제품수출은 1984년도에 0.4백만b/d를 기록한 바 있다.

(3) 이란

전쟁으로 인하여 原油판매에 가장 큰 애로를 겪고 있는 이란은 公式價의 적용을 도외시한 채 각종 판매방식을 거의 모두 동원하고 있다.

이란의 原油판매정책은 일관성이 없다는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데, 판매방식은 連繫貿易추진, 現物市場투매, 精製價值基準판매, 戰爭保險料부담을 감안한 할인판매, 기타 셔틀(Shuttle)船 운영 등으로 다양하다.

최근 5월중에 Shell, BP, Amerada-Hess, Texaco, Enpetrol 등과 체결한 精製價值基準판매계약은 6월부터 6개월간 總 0.3백만b/d를 인도하는 것으로, 계약내용중 특징적인 것은 구매자가 소비자일 경우와 판매자일 경우로 구분하여 판매자일 경우 到着地 제한 규정을 적용하였다는 것이다. 이 규정은 특히 對日原油판매상의 애로를 타개하고자 하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日本의 종합무역상사들은 이란으로부터 구입한 原油를 현물시장에 재판매함으로써 油價인하압력을 가중시켰으며, 또한 전쟁보험료를 감안한 대폭적인 가격할인 및 연계무역시의 原油결제비중감소요구등으로 가격협상에 있어서 이란에게 항상 애로를 주어왔다.

이란의 原油판매에 있어서 연계무역은 다른 산유국의 경우보다 더욱 중요한 原油판매방식인데, 1985년초

〈表-3〉 中東 주요산유국의 公式價 추이

(單位: \$/B)

	主要油種	硫黃含有量 (%)	생산량 (천b/d)	公式價 변동				
				1983. 3	1984. 10	1985. 1	1985. 2	1985. 5
사우디아라비아	Light-34	1.7	800	29.00	28.00	
	Medium-31	2.4	750	27.40	...	27.65	27.40	
	Heavy-27	2.8	1,050	26.00	...	26.50	26.50	
	패키지原油	2.3	...	28.08	27.55	27.78	27.32	
이 란	Light-34	1.4	...	28.00	...	29.11	28.05	
	Heavy-31	1.6	...	26.90	27.10 (83.8)	27.55	27.35	
이 라 크	Kirkuk-37	1.9	1,250	29.43 (83.4)	28.18	
쿠 웨 이 트	Kuwait-31	2.5	800	27.30	...	27.55	27.30	
U. A. E.	Murban-29	0.8	400	29.56	...	29.31	28.15	
이 집 트	Suez Blend-33	1.5	550	25.60 (84.4)	27.50	
알 제 리	Condensate-65	0.0	250	28.50 (83.12)	27.00	25.00	25.69 (85.3)	26.89 (85.4)
리 비 아	Es Sider-37.5	0.6	...	30.15 (83.2)	

〈資料〉 PIW 등.

계약체결된 수출량은 약 0.45백만b/d에 달하였다. 그러나 연계무역방식에 있어서도 최근 油價가 약세를 보임에 따라 구매자가 인수를 기피함으로써 이란은 예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4) 이라크

이라크는 原油수출에 이란만큼 큰 예로를 겪고 있지는 않지만, 터어키 횡단 파이프라인, 사우디 아라비아 횡단 파이프라인 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연계무역의 추진, 精製價値기준판매, 現物市場판매 등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라크의 1984년 原油수출실적은 유일한 수출통로인 터어키 횡단 파이프라인(Dortyol Line)을 통하여 846천b/d를 기록하였는데, 이 중에는 연계무역에 의한 400천b/d가 포함되어 있다. 이와는 별도로 사우디 아라비아와 쿠웨이트로부터 원조받고 있는 中立地帶산유량 300천b/d는 현물시장에 판매되었다.

이라크의 연계무역대상국은 브라질,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東歐圈국가들인데, 판매가격은 地中海 또는

로테르담 現物市場가격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이라크는 외채이자를 原油로써 지급하기도 한다.

(5) 오만

오만은 公式價를 1985년 1월부터 現物油價에 연계시켜 매월 조정하고 있다.

오만의 원유판매에 있어 특이한 것은 정부의 公式價가 現物價를 배럴당 50센트 이상 상회할 경우 구매자가 원한다면 정부가 還買(buy-back)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형식의 계약은 안정적 供給源을 찾고 있는 日本의 종합무역상사 5개사와 체결된 바 있다(약 90천b/d, 계약기간은 未詳).

현재 오만의 산유량은 약 490천b/d인데 이중 절반이 기간계약에 의해 판단되고 있다.

2. 유럽産油国

(1) 노르웨이와 英國

이들 양국은 1984년 10월 原油시장에서 油價인하압

력에 따라 公式價인하조치를 취한 이후 현재는 公式價를 현물유가에 연계시키고 있다.

대부분 原油형태 그대로 수출(약 250천b/d) 하고 있는 노르웨이는 산유국중 최초로 現物油價 연계방식을 채택한 바 있는데, 1985년 1월부터는 持分생산자의 과세기준 등을 목적으로 標準價格(Norm price)을 매월 발표하고 있다.

1984년중 산유량의 약 60%를 수출한 바 있는 英國은 동년 하반기부터 분기별 公式價에 불만을 가진 기간계약구매자들이 계약을 기피하게 되자 1985년 1월부터는 公式價를 전월의 平均現物油價에 연계시키고 있다. 國營石油會社인 BNOC(8월 해체)는 현재 현물시장에 소량 할인판매하고 있다.

(2) 소 련

최근 수년간의 곡물생산 부진에 따라 原油수출을 강화하고 있는 소련은 1985년 原油생산목표를 12.56백만b/d로 정하고 있는 가운데 판매에 있어서는 공식가를 적용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수출(약 2백만b/d)하고 있다.

地中海와 北유럽시장에서 이집트原油 등과 경쟁관계에 있는 우랄油의 公式價는 점차 현물유가에 연계되고 있다(최근 公式價조정이 빈번해 짐). 연계무역과 관련해서는 이란, 리비아 등과 武器販賣契約(Weapons-for-oil deals)으로 수취한 原油를 현물시장에 재판매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對日판매에 도착지제한규정

을 적용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1984년중 日本側에 판매한 原油가 유럽시장에 할인판매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소련은 외환수입목적상 原油판매가격을 더욱 시장가격에 접근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 아시아產油國

(1) 中 共

싱가포르시장에서 인도네시아(1984년 산유량 1.47백만b/d)와 경쟁하고 있는 中共(1984년 산유량 2.17백만b/d)은 公式價를 분기별로 소급하여 적용하는데 통상소비국(주로 日本, 1984년중 0.25백만b/d 原油수출)과 협의하여 현물유가에 연계시켜 결정한다.

최근에는 美國시장진출을 도모하면서 精製價値기준으로 原油를 판매하며 日本에 再流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착지제한규정도 적용하고 있다. 또한 0.1백만b/d의 原油는 싱가포르에서 정제되어 판매되기도 한다.

1984년중 中共의 原油 및 石油製品수출량은 전년대비 40% 증가한 537천b/d를 기록하였으며, 이 부분의 外換收入額은 전체 외환수입의 1/4에 해당하는 약 50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表 - 4〉 유럽產油國의 公式價 추이

(單位: \$/B)

	주요油種	硫 黃 含有量 (%)	생산량 (천b/d)	公 式 價							
				84. 10	84. 11	85. 1	85. 2	85. 3	85. 4	85. 5	85. 6
英 國	Brent Blend-38	0.4	895	28.65	...	27.25	26.75	27.00	28.25	27.40	26.65
	Forties-37	0.3	525	28.55	...	27.25	26.75	27.00	28.25	27.40	26.65
노르웨이	Ekofisk Blend-43	0.1	245	28.65	28.95	26.80	27.35	28.05	28.10	27.35	
	Statfjord-38	0.3	435	28.25	...	26.60	27.15	27.85	27.60	26.85	
소 련*	Urals-32	1.4	1,000	28.00	27.00	26.00

註: * 地中海 CIF 가격.

(資料) PIW. June 24, 1985 등.

(2)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國營石油會社 PERTAMINA는 여전히 형식상으로는 공식가판매정책을 위주로 하지만, 시장 가격으로 할인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對應購買政策 (Counter purchase policy)을 취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原油와 天然가스를 원칙적으로 그 대상품목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교역상대국의 사정에 따라 간혹 이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알제리와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의 가스수출에 있어서는 가스가격이 原油公式價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原油의 公式價는 여타국에 비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4. 中南美산유국

(1) 멕시코

멕시코는 原油의 주수출국이 美國인데 최근 原油수출통제를 해제한 캐나다와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약 1.5백만b/d의 原油를 수출하는 멕시코는 非OPEC산유국이면서 OPEC의 정책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여 왔으나, 최근 6~7월중에는 公式價인하조치를 단행하였다. 통상 멕시코의 公式價는 여타 競爭油보다 낮게 책정되고 있는데, 7월 발표된 가격은 現物油價에 연계시켜 더욱 낮게 책정되었다. 이번의 가격결정에서 특이한 것은 지역별(美州지역, 유럽지역, 아시아지역)로 가격을 차등화시켰다는 것이다.

(2) 베네수엘라 및 에콰도르

베네수엘라의 原油수출은 API 22° 이하의 重質油와

石油製品의 수출로 특징지어지는데, 제품수출(약 0.5백만b/d) 가격은 카리브市場의 현물가격에 연계시키고 있으며, 重質油(전체 原油수출량의 70%인 0.7백만b/d) 가격은 배럴당 22~25달러 범위에서 낮게 책정하고 있다.

한편 에콰도르는 기간계약의 경우에는 現物油價에 연계시키고 있으며, 판매하지 못한 原油는 해상에 비축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5. 아프리카산유국

(1) 나이지리아

OPEC회원국으로서 1984년 10월 일방적으로 公式價인하조치를 취했던 나이지리아는 外換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혼합판매, 밀수방지, 자국산유량 쿼터 초과생산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중전 금지해 왔던 연계무역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판매하지 못한 原油는 持分생산자(현재 산유량의 30%)에게 배럴당 2달러 할인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이지리아가 최근 체결한 주요 連繫貿易協定 내용은 <表-5>와 같다.

(2) 리비아 및 알제리

1백만b/d의 原油를 생산하고 있는 리비아는 여타 산유국과는 달리 공식가판매를 강력히 고집하고 있는 국가이다. 그러나 실제로 公式價적용을 받는 原油판매량은 0.1백만b/d의 소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

<表-5> 나이지리아의 주요 連繫貿易 협정(1985년중)

대 상 국	관 련 회 사	상 품	原 油 量	계약기간	비 고
브 라 질	Petrobras	폭스바겐車資本財등	80천b/d (약10억달러)	12개월	1984. 9월 5억달러契約件(40천b/d 物量으로 12개월)을 갱신한 것으로 현재 협상중
프 랑 스	Scoa, Eif	푸조車部品등	50천b/d (약 5 억달러)	12개월	최근 Elf社가 現物油價弱勢를 들어 인수 거절, 재협상중
이 탈 리 아	Agip	피아트車部品	40천b/d (약 4 억달러)	12개월	협 상 중
	Saipem	工事代金	(약 2 억달러)	...	
오스트리아	Voest Alpine	機械·資材등	20천b/d (약 2 억달러)	12개월	5.5억달러 정유공장건설先受金 협 상 중
佛 · 日 美 國	Spie·JGC등 GM 등	工事代金 自動車部品	(약0.7억달러)	

〈表 - 6〉 산유국별 原油販賣方式 요약

	現物油價 연 계	現物市場 관 매	혼합판매	제 품 및 精製販賣	精製價値 기준판매	연계무역	到 着 地 한
사우디아라비아	○	○	...	○	...
이 란	○	○	...	○	○	○*	○
쿠 웨 이 트	○
U. A. E.	○	○	...	○	...	○	○
카 타 르	○	○	○
오 만	○
이 라 크	○	○	○	○	...
알 제 리 아	○	...	○	○
리 비 아	○	○	○	○	○
이 집 트	○
나 이 지 리 아	○◇	...	○	○	...	○	...
英 國	○	○
노 르 웨 이	○
소 련	○	○	○
인 도 네 시 아	○	...	○	○	...	○	○
中 共	○	○	○	...	○
말 레 이 지 아	...	○	...	○	○
美 國	○	○
멕시코	○
캐 나 다	○	○
에 콰 도 르	○	○
베 네 수 엘 라	○	○

註 : * 최근에는 連繫貿易을 금지시키고 있음.

◇ 持分生産者로부터 還買時 적용함.

〈資料〉 PIW, June 24, 1985.

다.

리비아의 산유량 1백만b/d는 국내소비용으로 0.2백만b/d가 충당되고 0.5백만b/d는 持分생산자에게 배분되며 나머지 0.3백만b/d가 주로 연계무역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리비아는 소련과의 무기구입대금(약 125천b/d)과 이탈리아, 그리스, 터어키, 유고슬라비아 등의 건설공사 대금 등을 原油로 지급하고 있다.

한편 超輕質油산유국인 알제리에 있어서는 石油製品과 컨덴세이트(Condensate)가 石油수출의 主宗을 이루고 있는데, 0.3백만b/d에 달하는 컨덴세이트는 現物油價에 연계시켜 판매하고 있다. 公式價의 적용은 天然가스 판매시 또는 바터 거래시에 국한하여 실시되고 있다.

IV. 맺는 말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산유국들은 原油수요의 감소와 油價하락 상황하에서 外換收入의 증대 내지는 유지를 위하여 가격할인을 위주로 하는 각종 판매방식을 동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에서의 에너지 효율성증대 및 경기둔화 등으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더우기 油價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그동안 산유량을 억제해 온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나이지리아 등의 產油量증대가 예상되어 산유국들은 여전히 原油판매에 애로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반영 최근 OPEC회원국들은 일련의 회의

□ 국제석유시장동향 □

에서 精製價值기준판매 등 시장가격에 근접하는 가격 결정방법을 논의한 바 있는데 이러한 가격결정방법은 그동안 공식적으로는 禁忌視되어 왔었다.

그러나 달러 표시 유가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산유국들의 購買力 감소는 아직까지 그리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는 餘他通貨에 비해 강세를 보였던 달러貨가 原油決濟通貨의 主宗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보면, 美國 이외의 소비국은 油價하락에도 불구하고 달러의 강세로 油價하락분만큼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달러 강세로 인한 이러한 부

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최근 日本通産省은 原油決濟通貨를 円貨로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만 하다 하겠다.

향후에도 原油市況이 계속 약세를 보일 경우 산유국들은 앞에서 열거한 판매방식 외에도 환율부담을 고려한 결제통화의 다양화를 비롯하여 代金결제기간의 연장, 대금중 외환비중의 축소 및 수송비를 감안한 地域別價格差等制의 확대실시 등의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하겠다. *

註：1) 公式價格 또는 公式價의 개념은 1975년 OPEC산유국이 정식 채택한 것으로서, 이 가격이 채택되기 이전에 메이저(majors)에게 지급할 利潤算定을 위해 이용되던 公示價格 또는 公示價(posted price)에서 변형된 것임. 公式價는 통상 公示價에 0.93을 곱하여 역산될 수 있음.

註：2)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IEA)는 現物거래규모를 전체의 1/3로 보고 있으며, 石油專門誌인 PIW(Petroleum Intelligence Weekly)는 2/3까지로 보고 있음.

註：3) PIW에 의하면, 精製價值算定時의 기준은 ① 세계 주요 6개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② 原油는 限界原油 1 배럴(marginal barrel) 그리고 ③ 가격기준은 原油導入가격은 產油國 FOB基準, 製品(나프타, 가스오일 등) 가치는 정유회사 FOB 기준으로 각각 정함. 精製價値의 계산은, 原油 1배럴에서 생산되는 各製品의 現物市場價格에 각각의 생산구성비를 곱하여 얻어진 總價値(gross product worth:GPW)에서 原油 1 배럴에 소요된 정제비, 수송비 등을 차감함으로써 이루어짐.

아라비안 라이트油의 精製價値계산例(시장: 로테르담, 시기: 1985. 3)

㉠ 製品價値계산

製 品	現 物 價 格	生 産 構 成 比	價 值
Naphta	\$ 26.74	× 5.4%	= \$ 1.44
Premium Gasoline	\$ 29.27	× 11.9%	= \$ 3.48
Regular Gasoline	\$ 27.92	× 4.3%	= \$ 1.20
Gas Oil	\$ 31.09	× 40.3%	= \$ 12.53
Fuel Oil	\$ 25.96	× 32.8%	= \$ 8.52
合 計(GPW)			\$ 27.17

㉡ 精製價値計算

製品價値.....\$ 27.17
 精 製 費.....\$ -0.30
 輸 送 費.....\$ -0.82
 精製價値(FOB 基準).....\$ 26.05

㉢ 參考(아라비안 라이트油 기준)

• 精油會社 FOB 基準 정제가치...\$ 26.05
 • 公式價의 경우.....\$ 28.00
 (精油會社 마진).....\$ -1.95
 • 現物價의 경우.....\$ 27.80
 (정유회사 마진).....\$ -1.75

기타 자세한 내용은 PIW, April 22, 1985를 참조.

아껴쓰는 에너지 내집튼튼 나라튼튼